

TOK, 송도에서 반도체 소재 생산

인천시와 투자협약 체결 ... LCD 소재 포함 2015년 매출 1000억원

일본 투자기업 TOK첨단재료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반도체 및 LCD 생산용 첨단재료 연구소와 생산설비를 건설한다.

인천시는 TOK(Tokyo Ohka Kogyo)가 출자한 TOK첨단재료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부지 2만 8000㎡에 차세대 반도체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생산용 첨단재료 연구소와 생산설비를 세우기 위한 투자협약을 9월5일 체결했다.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인 TOK는 삼성물산과 공동 출자한 TOK첨단재료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관련시설을 건설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TOK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등 자연재해로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생산설비를 한국에서 확충하고, 국내 주요 수요기업과 20나노 이후의 차세대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TOK첨단재료 이와사키 코분 대표이사는 “송도에 건립할 시설에 신규인력 200여명을 채용하고, 관련제품 기술이전을 위해 일본인 기술자 20여명을 파견할 방침”이라며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2015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5>